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1/15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벧후 1:4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딤전 1:3-4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엡 1:10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엡 3:2, 8-9
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 하나님의 목적은 이 그릇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우시기 전에 사람은 더럽혀지고 부패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을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수단일 뿐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어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격의 일부가 될 수 있다거나 유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집, 그분의 가족이 되었지만, 그분의 주권이나 위격에는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받을 수도 없다.(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보충하는 말씀(1), 70-7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사를 보면, 2 세기부터 성경을 해석하던 몇몇 교부들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후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고 이단적인 이들로 여겨졌다. 그러나 요한복음 1 장 12 절과 13 절은 …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한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분명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기독교에 있는 전통적인 관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선해지고 영적이 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상이 없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놀라운 하나님-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우리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벧후 1:4).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난 이들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그분 자신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은 '인화(人化)' 되시고 우리는 '신화(神化)'되는 것이다. 결국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모두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살아 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우리 사람은 사진과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없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이 사진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그분의 존재와 같은 '진정한' 인격이 되었다. 그분은 '인화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화된' 사람이다. 결국 둘이 하나가 되어 모두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사람들이 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실 때 우리도 자란다(골 2:19).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합당한 일이 영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증가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자라서 진정한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보충하는 말씀(1), 71-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시대의 이상, 2 장; 장로 훈련, 5 권, 주님의 최근의 움직임에 관한 교통, 1 장

1/16 화요일

아침의 누림

엡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엡 3:16-19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벧전 1:15-16
15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16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 12:14
14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고, 거룩하게 되도록 추구하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고'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고 분별될 뿐 아니라, 속된 모든 것과 다르게 되고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과 다르시고 구분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신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온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 1:4)이고,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 자신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죄 없는 온전성이나 죄 없는 순수성과는 다르다. 이렇게 하여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으로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거룩하게 된다. (엡 1:4 각주 4)

오늘의 읽을 말씀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나의 의도가 있으셨고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경륜을 세우셨다. 그런 다음 그 영께서 오셔서 선택하신 이들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실 수 있게 하셨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되었다. 그다음 …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낳으심으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에베소서 1 장 4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이어서 5 절은 그분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거룩하게 하심은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것, 즉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들들이 되는 것에는 모두 하나님의 분배하심이 요구된다. …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필요하다. 거룩한 영(성령)께서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시는데, 이 거룩한 본성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거룩한 요소가 된다. 찬송가 381 장 1 절은 "주의 신성으로 날 거룩게 해 / 주의 부활 내게 승리 주시네"라고 말한다. 그분의 거룩한 본성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부활 능력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어지도록 할 때, 이 거룩한 본성은 거룩한 요소가 되고, 이 요소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 그분의 분배하심이다.

거룩하게 하심과 아들의 자격은 모두 항상 그 영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서 1 장 3 절은 이것을 영적인 축복, 곧 그 영에 의한 축복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하며,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을 따라 처신해야 한다(롬 8:4).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처신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랄 준비가 된 것이다. 그 다음 우리에게는 얼마간의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한 말씀을 읽는 것과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과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 영양 공급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

우리를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 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낳으시는 분도 그 영이시다(요 3:6). …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하는 문제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생명의 성장이 없이 회복 안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귀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염려가 된다. 비록 그들은 집회하고 성경을 읽으며 메시지를 듣지만, 그 영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비록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회복을 사랑하며 교회생활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영께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을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거룩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전적으로 관여하시는 이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롬 8:16, 고전 6:17). 만일 우리가 그 영을 주의하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영을 주의해야 한다. (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1 장, 26-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8 권, 이상의 최고봉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1-3 장

1/17 수요일

아침의 누림

히 2:11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살전 5:23
23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엡 4:30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엡 5:26-27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전 6:11
11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계 21:2, 10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 주는 노선이다. …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의 의도이며, 또한 하나님은 이 의도를 목적으로 만드셨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이 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의 위대한 요점이다. … 우리는 '붙잡아 주는 노선'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간다면 그에게 낚싯줄이 필요하다. … 그 줄은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그가 잡은 물고기를 붙잡아 준다. 바꾸어 말하면, 그 줄이 그의 낚시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붙잡아 주는 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각 단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12 장, 153-1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우주의 단 한 부분도 거룩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도 거룩하지 않았다. 온 우주 안에서 오직 한 분만이 거룩하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온전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그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거룩한 본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거룩한 본질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불린다(계 21:2). … 새 예루살렘은 금 위에 건축된다. … 금은 신성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본성만이 거룩하다.

우리가 신약에 따라 가장 높은 의미에서 거룩함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인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베소서 1 장 4 절과 5 절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거룩하게 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단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의 회개를 낳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됨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회개와 영광스럽게 됨 사이에 거듭남, 새롭게 됨, 변화, 같은 형상을 이룸, 우리 몸의 변형 즉 우리 온 존재의 영광스럽게 됨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의 노선이다. 그러므로 이 노선은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을 붙잡아 준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낚싯줄에 '걸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인류라는 '큰 바다' 속에 있었지만, 거룩하게 함이라는 이 줄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는 그 줄에 달린 낚싯바늘에 걸렸다. 우리가 이 줄에 걸린 것은 우리의 몸이 변형될 때 완결될 것이다. …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 주었다. 그의 말 속에 '낚싯바늘'이 감추어져 있었고, 우리는 그 낚싯바늘에 걸렸다. 우리는 가책받고 회개하고 믿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의 붙잡아 주는 노선 위에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이다.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영광스럽게 됨까지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붙잡아 준다. 그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새롭게 됨과 변화와 같은 형상을 이룸을 거쳐 우리 몸의 구속(엡 1:14, 4:30)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이르기까지(unto)'는 '어떤 결과를 낳다'를 의미한다. 우리 몸의 구속은 신성한 거룩하게 하심의 완결이다.

그러한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써,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은 신성한 아들화이다. …신성한 관점에서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아들화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이 없고 신격을 가질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 우리의 혼이 완전히 아들화될 때 결국 우리의 몸도 변형될 것이다. 즉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12 장, 154-15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11-14 장

1/18 목요일

아침의 누림

엡 5:26-27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 30:18-21
18 "너는 또한 씻는 데 쓸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으로 만들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19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20 그들은 회막으로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곧 여호와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도
21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씨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마 4:4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계 2:7
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길을 보아야 한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신성한 관념에 따르면,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흐르는 물로 예표되었다(출 17:6, 고전 10:4, 요 7:38-39, 계 21:6, 22:1, 17). 여기에서 물로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씻는 것과는 다르다.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어 내지만(요일 1:7, 계 7:14), 생명의 물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엡 5:27)인 우리 옛사람의 타고난 생명의 흠들을 씻어 낸다.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때, 먼저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 내시고(히 13:12), 그다음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타고난 흠들을 씻어 내신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금 우리는 이러한 씻는 과정에 있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4, 49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깨끗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의 씻는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말씀 안에 생명의 물이 있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으로 예표된다(출 38:8, 40:7).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씻는’에 대한 헬라어는 직역하면 ‘물두멍’이다. 이 헬라어 단어는 <칠십인역 성경>에서 ‘물두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되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어 냈다(출 30:18-21). 이제 씻는 물은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를 씻어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먼저 제단에 간 다음 물두멍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구속되고 의롭게 되기 위해 먼저 십자가로 간 다음에, 깨끗이 씻어지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간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이 씻어져야 한다. … 인간 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깨끗이 씻어지기 위해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엡 5:26)이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후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말씀하시는 영이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씻어 주는 말씀이다.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logos)’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곧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레마(rhema)’를 가리킨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말씀하기를 갈망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사람은 누구도 잠잠할 수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그를 강권하시어 그가 말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생활 안에서 외적인 교정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그분의 방식은 우리를 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시고 그 다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다.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내적 존재를 씻는 물이다. 이러한 씻는 물은 새 요소를 우리 안에 넣어 둠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기질에 있는 옛 요소를 대치한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은 참된 생명의 바뀜을 일으킨다. 이러한 바뀜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변화이다. 외적인 교정은 가치가 없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적이고 신진대사적인 씻음이며, 이것은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에서 비롯된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4, 499-500 쪽, 메시지 55, 506-50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4-55;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3 장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1/19 금요일

아침의 누림

행 26:16-19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7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 보내는데,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시 51:1-2, 7, 9, 12-13

1 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잘못을 지워 주십시오.
2 저의 죄악에서 저를 철저히 씻겨 주시고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7 우슬초로 저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9 저의 죄들에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12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시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13 저는 범법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요일 1:7, 9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며 총체적인 복음이 사도행전 26 장 18 절에서 발견된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들이 용서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도들의 공동의 몫을 누려 교회생활을 갖게 한다. 이 한 절에 일곱 가지의 요점이 있다. (1)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 (2)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한다. (3)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4) 죄들이 용서받도록 돕는다. (5)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도록 돕는다. (6) 그 결과 그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공동의 몫을 얻도록 하고 (7) 교회생활 안에 머물게 한다. … 이것이 청년들이 이 세대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다. 천당에 간다고 하는 가련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도행전 26 장 18 절에 계시된 높은 수준의 복음을 전파하라.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3 권, 청년들을 위한 훈련, 1 장, 426-4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주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어둠에 속한 모든 것에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실재이다. …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를 사탄의 권세와 지배에서 당신 자신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역이시고, 저의 범위이시며, 저의 왕국이십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하는데, 여러분은 달라질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들을 두고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라. "주님,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제 눈이 더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불투명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네 생물과 같은 눈을 갖고 싶습니다." 그 생물들은 안팎의 모든 곳에 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들은 우리가 수정과 같이 투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 다른 이들이 선하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 성경적일 수 있지만, 그들은 투명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제 모든 죄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떤 것도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또한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지 용서만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몫으로 누린다. 우리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 그분을 누린다. …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하게 된 이들이다.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된다. 오, 우리는 이 일곱 가지 요점을 두고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 "주님, 저는 사도행전 26 장 18 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신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는 충만하고 완전하며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온전하고 철저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룰 뿐 아니라 사탄의 왕국도 다룬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몫이신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몸 곧 그리스도의 교회인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을 체험해야 하는지!

완전한 복음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다만 전도자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장담하건대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에게 이상을 줄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볼 것이다. … 우리는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 제 눈을 뜨게 하셔서 온갖 어둠에서 빛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제 모든 죄악됨을 철저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셔서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당신을 제 몫으로 누리게 해 주십시오."(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3 권, 청년들을 위한 훈련, 1 장, 427-42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3 권, 청년들을 위한 훈련, 1 장; 워치만 니 전집, 개정판, 23 권, 노래 중의 노래, 6 단락

1/20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골 1:12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행 26:18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히 2:10-11
10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계 21:3, 7, 11, 22-23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 장 18 절의 '유업'이란 단어는 또한 '할당된 땅'이나 '몫'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또한 골로새서 1 장 12 절에서도 사용된다. … 골로새서 1 장 12 절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은 사도행전 26 장 18 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받는 몫과 동일하다. …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성도들의 몫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골로새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몫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다룬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인격 안에 감추어져 있고(골 2:3),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9 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할당된 신성한 몫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개정 2 판, 4 장, 6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거스를 수 없었다(비교 행 26:19). 바울의 위임은 그가 받은 이상에 따른 것이었다. … 만일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참되게 전환되었다면, 우리가 보고 체험한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위임이 산출되거나 생길 것이다. 이 이상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 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 행동하고 일하며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체험이시고, 내 인생의 의미와 중심이심을 참으로 보았다면, 교회의 책임 형제들은 내게 와서 내가 교회의 지체이므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이상을 보았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전환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생겨날 것이다.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

다른 믿는 이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자신이 아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과 교통 할 것이다. 우리의 위임과 사역은 하늘에 속한 이상에서 나온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더욱 주님을 접촉할수록,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이 생길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 대한 내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단지 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산출된 어떤 것일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교리나 형식이나 규율이나 강령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를 가져가지 않고 살아 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것(골 1:27, 고후 13:5)에 대해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와 교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은 그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형제님의 체험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수 있다. 만일 여러분이 영 안에서 매우 살아 있다면, 여러분이 말한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고 강한 충격력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말한 것을 존중하실 것이다. … 그는 여러분과 만난 후, 수일간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는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여러분과 다시 연락하기 원할 것이다. …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져갈 것이며, 이 위임은 여러분이 본 것에 달려 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활력을 주는 무언가가 일어나 여러분을 밀어 냄으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하여 그분을 섬기도록 한다.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모든 것으로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의 지식, 가르침, 규율, 형식, 은사들, 능력, 장중함, 풍성이시다. 만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와 가르침과 형식과 규율과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문제이다.(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개정 2 판, 4 장, 62-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개정 2 판, 1, 3-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시대의 이상, 2장

찬송: *What Miracle, What Mystery!*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The All-inclusive Christ, chs. 7-8

1/21 주일

아침의 누림

엡 1:15-23
15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22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 Living Stream Ministry, 2022, used by permission